

행정·채용 더뎠던 첫 관문 속에도… 현장은 ‘기회’ 말했다

르포

日 진출 스타트업들의 도전기

중진공, 도쿄서 GBC·KSC 운영
49社 입주해 정착·사업화 지원
비자·은행계좌 개설은 ‘하세월’
사무실 입지까지 따져야 하는 현실

시장 규모 크고 기술 수준 안정적
팬덤문화도 발달해 공략할 유망지
한국어 인재 많고 韓 기업 선호 ↑
기회 요인 커져 시장성 더욱 분명

지난 26일 오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중진공이 도쿄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GBC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에 입주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관계자 5명이 한국에서 온 언론사 취재진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나노 분산 유화 장비 등 특수목적용 기계를 제조하는 퍼스트랩의 최정환 이사 ▲글로벌 팬덤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마이프렌즈의 김보혜 일본법인 부사장 ▲일본 진출 희망 의료기기 회사를 위한 규제·인증 등을 컨설팅하는 엠디텍스 박재현 일본법인장 ▲인공지능(AI) 마케



지난 26일 일본 도쿄 도라노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입주기업들과 정하림 소장(맨 오른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승호 기자

팅 자동화 솔루션 회사 파이온코퍼레이션 정범진 대표 ▲초고속 무선통신 반도체 팹리스사 유니컨 도전석 영업이사가 일본시장에서의 도전기를 담담하게 전달했다.

“일본은 생성형 AI 도입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다. 그래서인지 AI 스타트업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사업을 해 보니 일본은 불편함을 참아야 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서비스가 수시로 출몰하는 미국과는 많이 다른 나라다.” 정범진 대표의 말이다.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진입권 뿐만 아니다. 행정 처리도 참 느리다.

최정환 이사는 “일본은 시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안정화돼 있는 나라여서 우리 비즈니스의

주요 타깃이다. 하지만 은행 거래를 위해 가상계좌를 먼저 열고 실제 계좌를 개설하기까지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전했다. 도전석 이사는 “거주비자를 만드는게 참 어렵더라. 가족비자도 시간이 많이 걸려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 나라다. 중진공 도쿄 GBC·KSC를 담당하고 있는 정하림 소장은 “일본은 사무공간이 비싸고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까다롭게 고르는 특성이 있다. 이때문에 진출 희망 기업들이 사무공간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특히 사무실이 어디에 있느냐가 비즈니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관건이 될 수도 있다”면서 “GBC나 KSC 입주기업들이 주소를 이곳(도라노몬)으로 할 수 있

는 것도 여러 장점 중 하나”라고 전했다. 서울의 강남 테헤란로와 견줄 수 있는 미나토구 도라노몬은 일본의 모리그룹이 개발한 도라노몬힐스, 롯폰기힐스 뿐만 아니라 도쿄에서 가장 비싼 주상복합 건물인 아자부다이힐즈가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다.

중진공이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GBC와 지난해 5월 새로 문을 연 KSC에는 현재 총 49개의 한국 기업들이 입주, 일본 공략을 위한 체비를 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최대 3년까지 공간뿐만 아니라 현지 지자체 및 기업과의 협업, 파트너 발굴, 인력 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재현 법인장은 “일본에서 인력을 채용해보니 쉽지 않았다. 구직자 우위시장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두달을 기다려 2명



에이스침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리뉴얼 오픈.

에이스침대

신세계百貨 강남점 새단장

헤리츠 등 하이엔드 라인업 전시

에이스침대가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의 중심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매장을 새단장하고 다시 열었다.

30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3년 연속 누적 매출 3조 원 이상을 기록한 국내 최상위 리테일 상권이다. 에이스침대는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약 20평 규모의 매장을 전면 재정비해 체형 중심의 하이엔드 공간으로 구성했다. 자사 제품 중 최상위 라인업을 가장 완성도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브랜드 정체성과 기술력을 강조한 고급 쇼룸을 완성했다.

새단장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프리미엄 매트리스 브랜드 ‘에이스헤리츠(ACEHERITZ)’ 및 ‘로얄에이스(Royal ACE)’ 라인업을 전시해 수면의 질을 중시하는 고객 요구에 부응했다. 특히 에이스헤리츠는 에이스침대의 60년 기술력에 최상급 소재를 집약해 선보이는 최고급 사양의 브랜드로, 매장에서는 헤리츠 전용 프레임 ‘H-201’과 에이스헤리츠 ‘블랙(Black)’ 매트리스를 만나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차세대 AR시장서 LEDoS 부상 밝기·투과 조건에 기술축 이동

마이크로LED 전사 등 난도 해결관건
공정 성숙도에 따라 격차 벌어져
일부 국내 기업서 장비 개발 진행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차세대 AR(증강현실)용 마이크로디스플레이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고휘도·고투과 성능을 갖춘 LEDoS(LED on Silicon) 기술을 기반으로 AR 디스플레이 구조가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EDoS는 AR용 디스플레이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LEDoS 채택 비중이 2025년 37% 수준에서 2030년 6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고휘도·고투과 기반 AR 기기 전략을 강화하고 향후 기술 축이 LEDoS와 LCoS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LEDoS가 빠르게 부상하는 배경에는 증강현실(AR) 기기가 요구하는 고휘도·투과율 조건을 기존 OLEDDoS가 완전히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AR 글래스는 실외에서도 정보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 수천~수만 니트급 밝기와 높은 광투과율을 필요로 하는데, 유기 발광 구조인 OLEDDoS는 열·재료 특성상 밝기 확보에 제약이 있다.

반면 무기 발광 기반의 마이크로LED를 실리콘 기판 위에서 구동하는 LEDoS는 구조적으로 높은 휘도 구현이 가능해 차세대 정보형 AR 기기에 적합한 광

원 기술로 평가된다.

LEDoS 확산을 위해서는 마이크로LED 칩 균일화·전사·본딩 등 핵심 공정의 난도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AR 기기는 고휘도와 고해상도를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수많은 마이크로LED 칩을 실리콘 기판 위에 정밀하게 배치하는 전사(Transfer)·본딩(Bonding) 공정의 성숙도가 양산 속도와 제품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업계에서는 향후 LEDoS 시장이 확대될 경우 이러한 공정 성숙도에 따라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LEDoS 관련 연구가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AR 글래스용 차세대 디스플레이 후보로 microLED 기반 LEDoS 구조를 검토하며 마이크로LED 칩 소형화와 백플레인 집적 등 기초 기술 연구를 추진 중이다.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microLED를 실리콘 기판에 집적하는 LEDoS 구조의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icroLED 전사·본딩·검사 등 LEDoS 기술과 공정에 적용 가능한 장비 개발 역시 일부 국내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어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LEDoS는 공정 난도가 매우 높아 단기간에 완성도 높은 양산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글로벌 브랜드의 AR 전략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연구개발과 장비 생태계 형성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준기자 nauta@

레미콘공업조합 등 중소기업계, 릴레이 기부

사랑나눔재단에 후원금 잇따라 전달

중소기업계가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릴레이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국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후원금 1억 원,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5000만 원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각각 전달했다.

1994년 설립한 레미콘공업조합연합회는 전국 20개 회원 조합을 중심으로 전국 레미콘 업계의 공동사업 및 조합원사의 자주적인 경제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레미콘연합회는 지난 경북 산불피해에도 10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특히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누적 후원금 1억원을 넘어서며 ‘9988사랑나눔미명장’ 칭호를 받기도 했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1981년에 설립해 지난 40년간 정보화 구축에 중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배조용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공공부문의 정보 사회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매년 회원사가 자발적인 성금모금으로 사랑나눔재단에 기부해 중소기업계의 사회적 책임에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 /김승호 기자

벤처協 “닥터나우 방지법” 창업생태계 폭탄

성명내고 국회 법사위 강력 비판
타다 사태 재발 우려 합리적 요청

벤처업계가 “닥터나우 방지법”은 창업 생태계에 던져질 폭탄”이라고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약사법 개정안’(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벤처생태계 3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평가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벤처업계는 약사법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4년전의 ‘타다 사태’와 같은 잘못된 선례를 반복할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시 소비자의 선택권은 사라졌고, 국내 모빌리티 혁신은 크게 후퇴했는데 벤처업계의 평가다. 그 결과 해외 서비스와 글로벌 경쟁사만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협회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서비스가 중단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국민들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승호 기자